상대시간명사 + 「にも」의 의미기능과 문의 제약

이정옥*
jungok-ok@hanmail.net

<目次>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
3. 상대시간명사+「にも」의 의미기능과 문의 제약
3.1 의미기능
3.2 문의 제약
3.2.1 부정문
3.2.2 과거시제
4. 「にも」와 「には」의 의미대립
5. 나오며

主題語: 상대시간명사(relative time noun), にも(nimo), には(niwa), 최대치의 예상(Expectation of the maximum), 복합조사(complex particle)

1. 들어가며

「昨日、明日、明後日」와 같은 상대시간명사[1] 는 예(1), 예(2)와 같이 조사 「に」와 함께 쓰이지 못하거나, 무조사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9: 85~89), 益岡·田窪(1992:74~83) 등). 그러나 다음의 예(1-1)과 같이 부조사 [2]「は」와 함께 쓰인 경우에는 공기제약이 해소된다[3].

* 숭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초빙교수

1) 益岡·田窪(1992：74~83)、益岡(1995)、仁田(2002：201-258)、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85~89) 등의 분류이다. 대표적으로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85-89)에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시점을 <상대시간명사>, 발화시에 개의치 않고, 절대적으로 나타내는 시점이 정해져있는 명사를 <절대시간명사>라 칭하고 있다.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88)에서는 <절대시간명사>로 「1時、1日、1月、平成元年、2000年、21世紀、江戸時代、正月、春、日曜日」등을, <상대시간명사>로는 「今日、明日、あさって、昨日、おととい / 今週、来週、先週 / 今月、来月、先月 / 今年、来年、去年 / 今、昔」 등을 들고 있다. 「明日」「明後日」는 대표적인 상대시간명사라 할 수 있다.

2) 조사 「は、も」 등은 係助詞, 取立て助詞, 副助詞 등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부조사를 사용하였다. 澤田(2007：2~5)에 寺村(1981), 森重(1970) 등의 용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

3)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상대시간명사+「には」의 의미기능과 문말 표현의 제약 등을 고찰한 논문이 졸고(2017)이다. 또한 이 부분은 졸고(2017)의 예문과 내용을 인용하였다.

(1) 作業は {明日・＊明日に} 終わるだろう。 <スウィート>[4)]

(2) {明後日・＊明後日に}届くでしょう。

(1-1) 作業は{＊明日に・明日には}終わるだろう。

(2-1) {＊明後日に・明後日には}届くでしょう。どれくらい使えるカメラがあるか楽しみです。 <Yahoo!ブログ>

그러나, 이러한 상대시간명사와 조사「に」와의 공기제약은 다음의 예문 (3, 4)와 같이 부조사「も」와 함께 쓰인 경우에도 해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3) (あべ首相){＊今日に・今日にも}国民栄養賞の授与を検討するよう指示へ。

＜とくダネ！2018年3月2日＞

(4) あえていえば、いまは敵対していないというだけで、{＊明日に・明日にも}互いに攻撃しあうかもしれない。 ＜もしも＞

또한 이 경우,「にも」는 <한도>의 의미를 나타내는「には」와 마찬가지로, 격조사「に」와 부조사「も」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위의 예(3, 4) 와 같이 일본어의 상대시간명사와 조사「にも」가 함께 쓰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にも」의 의미기능을 설명함과 동시에, 통어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어적 특징으로는 문의 제약을 주로 다룰 예정이며, 4절에서는「には」와「にも」의 의미가 대립하는 구조에 대해 본 논문 나름의 결론을 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각각의 조사 즉,「に」와「も」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奥田(1983), 尾上(1981), 青木(1992), 澤田(2007)등 다수). 조사「にも」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간단한 언급에 불과하지만 다음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89)이다.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89)에서는「父は明日∅は帰ってくるだろう」「父は明日には帰ってくるだろう」의 의미상의 차이를 「父

4)『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CCWJ(balanced Corpus of contemporary Written Japanese) 少納言에서 수집하였으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작례이다. 문의 용인도 판단은 저자와 일본인모국어화자에 의한 것이다.

は明日は帰ってくるだろう」는 「父が帰ってこない日(昨日、今日、あさって　など)」와의 대비를 나타내나, 「父は明日には帰ってくるだろう」는 위와 같은 해석 이외에 「遅くとも」라는 의미가 있으며,「明日」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의 한도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그 후, 「荷物は今日∅も届くだろう」와 「荷物は今日にも届くだろう」의 의미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荷物は今日∅も届くだろう」는 「荷物が昨日届いた。さらに今日も･･･」와 같이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も」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荷物は今日にも届くだろう」는 위와 같은 해석 이외에 「今にも」「すぐにも」의 「にも」와 마찬가지로「事態の発生が、想定される時点よりも早く、接近しつつある」라는 해석이 우선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적에 그칠 뿐 자세한 의미용법과 통어적 특징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어떤 조건하에서 이런 의미가 성립 가능한지 혹은 다른 의미용법은 없는지 다양한 예문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中村(2001：189~190)를 들 수 있다. 中村는 尾上(1981)의 「は」에 의한 「극한표시」라는 용어를 빌려, 「には」에 극한 표시가 존재하므로 광의의 복합조사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로 「には」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으나, 논문의 후반부에서 「にも」에 대해서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5)　会談は、早ければ明日にも行われる見通しです。

「にも」는 개연적인 시점을 나타내지만,「早ければ」라는 부사와 함께 쓰이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早い場合には」로 가정하는 시점을 지시한다. 당해시점은 가장 빠른 시점이며, 그 후에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함의한다[5].

中村(2001：189~190) 도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89)와 마찬가지로 예문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의미 정도를 시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두 논문 모두 「にも」자체가 주요 연구테마가 아니며,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89)는 저서의 특성상 상세한 기술이 이루어지 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이상, 선행연구와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이 관견(管見)에 따르면 「にも」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의미에 대한 지적은 있어왔으나 본격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예문을 통한 분석과 통어적 특징을 다룬 연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여러 예문을 통해 「にも」의 의미기능을 밝히고, 문 제약 등을 살펴보고

5) 인용자에 의한 번역임.

자 한다. 또한, 「には」의 관련성도 시야에 넣어, 의미기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대상으로는 상대시간명사+「にも」를 대상으로 한다. 「にも」의 경우는 절대시간명사와 공기한 경우에도 의미기능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나, 본고의 출발점이 상대시간명사와 「に」와의 공기여하, 「には」와의 공기에 이은 일련의 연구[6]과정의 하나로 「にも」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절대시간명사 예문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상대시간명사 「昨日、今日、明日 / 先週、今週、来週 / 先月、今月、来月 / 去年、今年、来年」와 「にも」가 함께 쓰인「昨日にも、今日にも、明日にも / 先週にも、今週にも、来週にも / 先月にも、今月にも、来月にも / 去年にも、今年にも、来年にも」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상대시간명사 +「にも」의 의미기능과 문의 제약

3.1 의미기능

상대시간명사 +「にも」의 의미기능은 간단한 언급에 불과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고, 본고 또한 선행연구의 지적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 다만, 다양한 예문을 통해 의기기능을 재확인하고자 하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にも」의 의미기능을 <최대치의 예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6) 会談は、早ければ明日にも行われる見通しです。재게=예(5)

(7) 早ければ明日にも200円割れもありそうな感じですが、本日は日経平均が一万割れから早々と反発した。 <Yahoo!ブログ>

(8) 怪我の方は、だいぶ良くなっているんです。来月にも、部隊へ復帰できると思います。 <ラバウル>

---

6) 본고 집필의 계기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해 두고자 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일본어의 상대시간명사는 조사 「に」와 함께 쓰이지 못 한다. 그러나 실제 예를 수집하여 보면 「仕上げは明日に持ち越す」와 같이 「に」가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졸고(2015)에서는 상대시간명에는 일본어의 조사 「に」와 공기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상대시간명사+に」가 문의 필수성분으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졸고(2015) 집필을 위한 예문 수집 중에 「상대시간명사+に」에 부조사 「は」 함께 쓰인 「상대시간명사+には」예문이 눈에 많이 띄었으며 「明日には」「明後日には」의 예문을 수집해 본 결과, <한도>를 나타내는 예문의 존재를 통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졸고(2017)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明日にも」「明後日にも」와 같은 예문에도 특별한 의미기능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9) 紀伊半島の「熊野三山を中心とする熊野大社などの霊場と参拝の古道」は、早ければ来年にも世界文化遺産に指定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伝えられる。 <Voice>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88~89)와 中村(2001：189~190)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예(6, 7)은 [会談が行われる] [日経平均が200円割れる] 일시로 예상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이 「明日」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8)은部隊への復帰」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이 「来月」임을, 예(9)는 「世界文化遺産への指定」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장 빠른 시일이 「来年」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中村(2001：189~190)와 실례 (7, 9)에서와 같이 부사 「早ければ」와 함께 쓰인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예(5)는 회담이 열리는 날은 내일이 아니라 모레여도 괜찮지만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明日」라는 의미이며, 예(7) 역시, 닛케평균이 100엔대로 떨어지는 것이 내일이 아니라 모레여도 그 이후라도 괜찮지만,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明日」라는 의미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상대시간명사와 「にも」가 함께 쓰여, 제시된 상대시간명사가 그 명제가 발생 가능한 [빠르면] [가장 빠를 경우]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를 <최대치의 예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明日」에 <최대치의 예상> 의 의미가 있음은 다음 예문과 같이 조사 「も」를 생략하면 비문이 되거나, 조사「に」를 생략하면 <추가, 첨가>의 의미가 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6-1) ＊ 会談は、明日に行われる見通しです。
(7-1) ＊明日に200円割れもありそうな感じですが、本日は日経平均が一万割れから早々と反発した。
(8-1) ＊怪我の方は、だいぶ良くなっているんです。来月に、部隊へ復帰できると思います。
(9-1) ＊ 来年に世界文化遺産に指定される可能性がある。

(6-2) #[7]会談は、明日も行われる見通しです。
(7-2) ＃明日も200円割れもありそうな感じですが、本日は日経平均が一万割れから早々と反発した。
(8-2) ＃怪我の方は、だいぶ良くなっているんです。来月に、部隊へ復帰できると思います。

(9-2) # 来年も世界文化遺産に指定される可能性がある。

7) #는 문의 의미가 바뀜을 의미한다.

실제로 예(6-1, 7-1, 8-1, 9-1)과 같이 조사 「も」가 쓰이지 않은 경우는 비문이 되고, 예(6-2, 7-2, 8-2, 9-2)와 같이 조사 「に」없이 「も」만 쓰인 경우는 <추가, 첨가>의 의미가 우선시 된다. 즉, 예(6-2)는 「会談が行われる」일시는 정해진 어느 날(예를 들면 「今日」)뿐만 아니라, 「明日」도 추가적으로 행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예(9-2) 또한「世界文化遺産に指定される」일시가 정해진 어느 날(예를 들면 「今年」)뿐만 아니라, 「来年」도 추가적으로 행해진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にも」가 <최대치의 예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부조사 「も」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澤田(2007:13~94)에 따르면, 긍정문에서 수량사와 함께 쓰인 「も」의 경우, <의외성의 함의>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음의 <도표1>이다. 예 (10) 「今日はご飯を3杯も食べた」는 화자가 먹을 것이라고 예상한 기대치는 「1杯」 혹은 「2杯」였으나 실제로는 예상외의 「3杯」를 먹었다는 의미이다. 즉, 「3杯」는 화자가 「1杯」 혹은 「2杯」에 비해 기대치나 예상치가 적은 수치임을 의미한다.

(10) 今日はご飯を3杯も食べた。

<도표1> 澤田(2007：42)

E値(X杯食べる)				
E値[8]大	1	2	3	小

「3杯」와 같은 수량사의 경우, 일반명사와 달리 내재적인 서열관계로 인해 청자도 그 관련성을 파악하기 쉽다. 이는 시간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내재적인 서열관계를 파악하기 쉽다. 다만, 「시간명사+も」의 경우, 「수량명사+も」와 달리, <의외성의 함의>가 아니라, <최대치의 예상> 즉, <빠르면, 가장 빠른 경우>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1) 余には子がいない。明日にも、誰かを養子にするかもしれないな。 <日本史>

8) EXPECT値の略。EXPECT値とは、話し手が、表現時以前の聞き手との共通知識から、対照集合(命題関数を満たす可能性のあるの要素の集合)の要素が、命題関数(話し手が不変化詞で提示した要素を変項に置き換えて得られる命題)を満たすことに関して、期待･予測する主観的な評価の度合いである。話し手は、聞き手も同様のE値をもつと仮定する。澤田(2017：15~16)

(11-1) #余には子がいない。明日も、誰かを養子にするかもしれないな。

<도표2>

E値(X時養子にする)				
E値大	明日	明後日	しあさって	小

예(11)은 화자가 양자를 삼을 수 있는 예상가능한 최대치의 날짜 (가장 빠른 날짜)는 「明日」로 본 것으로, 「明後日」나 「しあさって」도 예상은 할 수 있으나, 「明日」에 비해 기대치가 적음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 명제가 발생한 경우는 「明日」가 아닐 수도 있으나, 현상태에서 예상가능한 최대치(최대로 빠른 시일)가 「明日」임을 의미한다. 다만, 「시간명사+も」와 달리, 「明日も」가 될 경우 앞의 예(6-2, 9-2)나 예(11-1)과 같이 <추가, 첨가>의 의미해석이 우선시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사 「に」를 덧붙였다고 볼 수 있겠다[9].

이상, 부조사 「も」의 의미기능과 연관시켜 상대시간명사 +「に も」의 의미기능을 <최대치의 예상>으로 설정하였다.

3.2 문의 제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대시간명사+「に も」는 <최대치의 예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に も」는 모든 문에서 성립가능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3.2.1 부정문

앞에서 살펴본 예문들은 공통적으로 긍정문에서만 성립한다. 그렇다면 부정문에서는 <최대치의 예상>이라는 의미기능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일까? 예문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6-3) ＊会談は、明日にも行われない見通しである。

(7-3) ＊早ければ明日にも200円割れもなさそうな感じですが、本日は日経平均が一万割れから早々と反発した。

(8-3) ＊怪我の方は、だいぶ良くなっているんです。来月にも、部隊へ復帰できないと思います。

9) 이런 식의 설명에는 왜 「に」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나, 이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9-3) ＊ 来年にも世界文化遺産に指定されない可能性がある。

위 예문(6-3, 7-3, 8-3, 9-3)이 성립하려면 「会談は行われない」, 「200円割れしない」최대치의 예상일이 「明日」이거나, 혹은 「部隊へ復帰できない」최대치의 예상일이 「来月」, 「世界文化遺産に指定されない」최대치의 예상일이 「来年」이어야하는데, 발화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 발생하지 않음을 예상한다는 것은 문맥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예문은 성립불가능하다[10]. 발화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어떠한 사태가 어느 시점에서는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고 그 일시로 최대치인 경우 「にも」의 의미기능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위와 같은 부정문에서는 당연히 <최대치의 예상>을 의미하는 「にも」는 함께 쓰이지 못한다.

(12) 明日にも来るだろう。
(12-1) ＊早い場合には＊早ければ、明日来ないだろう。.
(12-2) 早い場合には / 早ければ、明日来るだろう。

「明日にも」를 「早い場合には、明日」「早ければ、明日」로 바꾸어 표현한 예(12-1)역시 부정문과는 공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긍정문의 경우 예(12-2)와 같이 공기가능하다. 이러한 대체표현의 공기가능여부도 부정문과의 공기불가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문에 쓰이는 경우 이러한 예문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문들은 <추가, 첨가>의 의미를 뜻하므로, 다음과 같이, 조사 「に」를 생략한 형태로 쓰여야 할 것이다.

(6-4) 会談は、明日も行われない見通しである。
(9-4) 来年も世界文化遺産に指定されない可能性がある。

3.2.2 과거시제

「にも」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정문과 함께 쓰이지 못한다. 동시에 다음과 같이 과거시제와도 함께 쓰이지 못한다.

10) 다만, 예문(9-3)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지정이 매해 발표되며, 현재는 지정된 상황이라면 이 문은 성립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상정하여야만 성립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부정문과는 함께 쓰이지 못한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도 시야에 넣는다면, 3.2.1을 <부정문>이 아니라 <현재사태의 부정>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6-5) ＊会談は、昨日にも行われた。

(9-5) ＊去年にも世界文化遺産に指定された。

<최대치의 예상>을 나타내므로, 지나간 일 즉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去年にも / 先月にも / 先週にも / 昨日にも[11]」는 예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今年にも / 今月にも / 今週にも / 今日にも」와 같은 상대시간명사의 경우에는 과거도 미래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실례가 존재하였고, 그 예문들은 모두 과거시제와 함께 쓰이지 않았다. 예(13)의 「移行」, 예(15)의 「成立」는 시제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각각 「移行の予定」, 「成立するのか」의 의미이므로, 미래시제와 함께 쓰였다고 볼 수 있다.

(13) 「n型太陽電池セル」は今年にも量産へ移行、台湾の調査会社。 <日経総研>

(14) 「調整手当」の廃止を検討する方針を固めた。今月にも開かれる特別職報酬等審議会に諮問。 <中国新聞>

(15) ディズニーによるフオックスの事業買収が今週にも成立か。 <Yahoo!>

(16) そのことでは、ちょっといい知らせが。今日にもアメリカから入りそうなの。 <霧の中>

이상, <최대치의 예상>을 나타내는 상대시간명사+「にも」가, 부정문과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문과는 함께 쓰이지 못함을 살펴보았다. <예상치>라는 의미가 지니는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나, 실제 예문을 통해 검증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 「にも」와 「には」의 의미대립

상대시간명사+「にも」가 <최대치의 예상>을 나타내는 반면, 상대시간명사 +「には」는 <한도>[12]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3절에서 「にも」의 의미를 부조사 「も」의 기능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듯이, 「には」의 의미도 다음의 <도표3>과 같이 부조사 「は」의 의미와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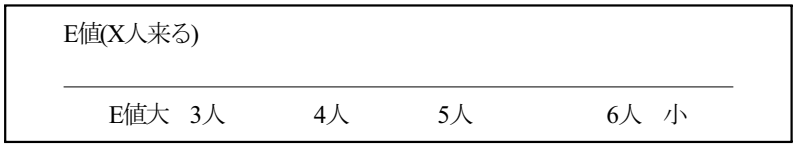
11) 「朝のうちかかっていた霧は晴れて、昨日にもまして暑かった。」와 같은 관용표현은 존재함.

12) 본고에서는 졸고(2017)에 따라 「には」의 의미를 <한도>로 하였으나, 「にも」와의 의미대립에 중점을 둔다면, <최소치의 예상>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 같다. 다만, 본고에서는 졸고(2017)에 따라 <한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17) (少なくても)3人は来るだろう。
(18) 明日は来るだろう。

예(17)은 「来る」 인원수로 예상가능한 최소치가 「3人」 이라는 뜻으로, 기대치가 가장 높은 인원수이다. 이는 「少なくても」와 함께 쓰이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도표3>



다만, 「시간명사+は」의 경우, 「수량명사+は」는 예(18)과 같이 <대비, 대조>의 의미가 우선시되므로, <한도>의 의미를 우선시하기 위하여, 조사 「に」의 도움을 받아 「には」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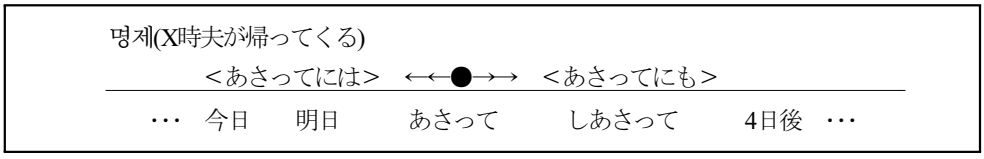
(19) 夫はそのまま、女のところへ行った。あさってには、帰ってくるだろう。 <輝き>
(20) 夫はそのまま、女のところへ行った。あさってにも、帰ってくるだろう。

위 예문은 모두 「あさって、夫が帰ってくる」라는 명제를 서술하고 있다. 단, 「夫が帰ってくる」일시로 예상되는 「あさって」를 <한도>로 파악하느냐(예(19)), <최대치의 예상(예상가능한 가장 빠른 날)>으로 파악하느냐(예(20))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19-1) 夫はそのまま、女のところへ行った。遅くてもあさって、帰ってくるだろう。
(20-1) 夫はそのまま、女のところへ行った。早ければあさって、帰ってくるだろう。

각각, 예(19-1)와 예(20-1)과 같이 「遅くてもあさって」, 「早ければあさって」로 치환가능함을 통해서도 설명가능하다. 두 관계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도표4>이다.

<도표4>



이상, 「には」와 「にも」의 의미대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5.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상대시간명사 「昨日、今日、明日 / 先週、今週、来週 / 先月、今月、来月 / 去年、今年、来年」와 「にも」가 함께 쓰인 「昨日にも、今日にも、明日にも / 先週にも、今週にも、来週にも / 先月にも、今月にも、来月にも / 去年にも、今年にも、来年にも」의 예문을 통하여, 「にも」가 <최대치의 예상>이라는 의미기능을 나타냄을 살펴보았다. 「にも」가 <최대치의 예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부정문과 공기하지 못하고, 또한 과거시제와도 공기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도>를 나타내는 「には」와 <최대치의 예상>이라는 「にも」의 의미대립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부조사 「は」「も」의 의미차이와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앞으로, 「には」와 마찬가지로, 「にも」의 복합조사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시간명사뿐 아니라 절대시간명사의 예문도 추출하여 「にも」의 의미기능의 일반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8~89)에서 지적한 「今にも」「すぐにも」등에 대해서도 각각 「今」「今に」「今には」「すぐ」「すぐに」「すぐには」등과의 의미, 통어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参考文献】

李廷玉(2015)「必須成分としての「相対時間名詞＋ニ」-「明日に」を中心に-」『日本語教育』第74輯、韓国日本語教育学会、pp.91-102

_____(2017)「한도를 나타내는 「ニハ」와 문말표현 – 상대시간명사 「明日」「明後日」를 중심으로-」『日本近代研究』第58輯、韓国日本近代学会、pp.47-58

青木伶子(1992)『現代語助詞「は」の構文的硏究』笠間書院
岡田雅彦(1991)「時間名詞の一側面「ニ」をとるばあいととらないばあいについて」『国語硏究』横浜国立大学国語国文学会、pp.39-46
奥田靖男(1983)「に格の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日本語文法・連語編(資料編)』むぎ書房、pp.281-323
尾上圭介(1981)「「は」の係助詞性と表現的機能」『国語と国文学』至文堂、pp.102-118
澤田美恵子(2007)「認識的判断に関わる「とりたて助詞」」『現代日本語における「とりたて助詞」の硏究』、pp.13-94
鈴木忍(1978)『文法1 助詞の諸問題1』国際交流基金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3、凡人社
徐娟(2016)「タメ、タメニとタメニハ-目的表現の焦点化-」『一橋大学日本語教育硏究』4号、pp.69-75
寺村秀夫(1992)「時間的限定の意味と文法的機能」『寺村秀夫論文集1』くろしお出版、pp.127-156
中村ちどり(2001)「時点の極限を表示するニハ」『日本語の時間表現』くろしお出版、pp.173-191
仁田義雄(2002)「時間関係の副詞とその周辺」『副詞的表現の諸相』くろしお出版、pp.201-258
日本語記述文法硏究会編(2009)『現代日本語文法2』くろしお出版、pp.85-89
_____(2008)『現代日本語文法6』くろしお出版、pp.233-238
益岡隆志(1995)「時の特定、時の設定」仁田義雄(編)『複文の硏究(上)』くろしお出版、pp.149-166
益岡隆志・田窪行則(1992)『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くろしお出版、pp.74-83
森山卓郎(1998)「例示の副助詞「でも」と文末制約」『日本語科学』、pp.86-100

【用例出典】
1.『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BCCWJ(balabced Corpus of contemporary Written Japanese)
2.야후검색엔진(www.yahoo.co.jp)
3.작례

논문투고일 : 2018년 03월 24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4월 18일
1차 수정일 : 2018년 05월 13일
2차 수정일 : 2018년 05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5월 17일

〈要旨〉

상대시간명사 + 『にも』의 의미기능과 문의 제약

이정옥

본고에서는 상대시간명사「昨日、今日、明日 / 先週、今週、来週 / 先月、今月、来月 / 去年、今年、来年」와「にも」가 함께 쓰인「昨日にも、今日にも、明日にも / 先週にも、今週にも、来週にも / 先月にも、今月にも、来月にも / 去年にも、今年にも、来年にも」의 예문을 통하여, 「にも」가 <최대치의 예상>이라는 의미기능을 나타냄을 살펴보았다. 「にも」가 <최대치의 예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부정문과 공기하지 못하고, 또한 과거시제와도 공기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도>를 나타내는「には」와 <최대치의 예상>이라는 「にも」의 의미대립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부조사 「は」「も」의 의미차이와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앞으로,「には」와 마찬가지로, 「にも」의 복합조사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시간명사뿐 아니라 절대시간명사의 예문도 추출하여 「にも」의 의미기능의 일반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2009 : 88~89)에서 지적한「今にも」「すぐにも」등에 대해서도 각각 「今」「今に」「今には」「すぐ」「すぐに」「すぐには」등과의 의미, 통어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The meaning and the sentence restriction of “relative time noun+nimo”

Lee, Jung-Og

In this paper it was studied the meaning and the sentence restriction of ‘nimo’ on the focusing ‘kinonimo, kyonimo, asitanimo/sensyunimo, konsyunimo, raisyunimo/sengetunimo. kongetunimo, raigetunimo/kyonennimo, kotosinimno, rainennimo’

It was considered that the meaning of ‘nimo’ is < Expectation of the maximum> and I found out that it can’t be concurrent with a negative sentence and the past tense. The meaning of ‘niwa’ is <limit> and < Expectation of the maximum>is shown ‘nimo’, in which meaning opposition explained the difference in the meaning of the particle ‘mo’and ‘wa’.

In the future, I will examine research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complex particle.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ima,imani,imaniwa,imanimo’, ‘sugu, suguni, suguniwa, sugunimo’